

제3회 고분자 산·학·연 심포지움을 마치고

제3회 고분자 산·학·연 심포지움이 지난 7월 20일 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용평리조트에서 개최되었다. 산업계, 연구소, 학계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시원한 자연속에서 주제에 대한 강의와 토론과 함께 친교를 나누는 뜻 깊은 심포지움이었다. 특히 용평으로 향하는 첫날 오전에는 비가 계속 내려 약간의 걱정도 되었으나 심포지움이 시작된 오후부터 맑음이 개어서 끝나는 날까지 출근 맑고 쾌청한 날이 계속되었다.

금년 고분자 산·학·연 심포지움 강좌의 주제는 세계화시대와 지방화시대를 맞이하는 국내 플라스틱 산업의 현황과 대응책에 관한 것으로 여러가지 흥미있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첫날 오후에는 이국노 이사장(한국 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의 국내 플라스틱 산업의 현황과 전망, 박익민 소장(생산기술연구원 부산경남지역센터)의 지방화시대를 맞는 산학연 협력 모델에 대한 강의가 있었는데 플라스틱 산업의 현황에 대한 실제 현장의 흥미있는 이야기들은 강의시간이 짧게 느껴지게 하였고 또한 산학연 협력을 위한 통산부의 주요 기술 정책 지원 방향에 대한 자세하고 유익한 강의가 있었다.

저녁 식사는 부폐식사를 하였는데 대부분의 회원이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여 회원들간은 물론이고 부인들, 아이들 모두 함께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경품권 추첨으로 많은 가족들이 꾸집한 상품을 받았고 모든 참석자들 및 어린이들에게 학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증정되었다.

둘째날에는 전영관 상무(SKC)의 정보화사회와 고분자에 대한 강의와 최형기 박사(국립공업기술원)의 자동차용 고분자의 재활용 전략에 관한 강의가 있었다. 정보화시대를 맞아 정보산업에 사용되는 고분자 재료에 대한 최근 기술과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의 재활용에 대한 흥미있고 심도 깊은 강의와 토론이 있었다.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버스를 이용하여 오대산 월정사를 관광하거나 동해안 바닷가로 물놀이를 가는 등의 자유시간을 가졌다.

셋째날에는 장문호 화공조경관(과학기술처)의 국가 과학 기술 정책 방향에 대한 강의와 신운환 박사(특허청 국제특허 연수원)의 WTO체제에 대응하는 공업 소유권 전략에 대한 강의가 있었는데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산·학·연의 연구,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공업 소유권과 관련하여 변리사 제도 및 특허에 관련된 절차 등에 대한 유익한 강의 및 토론으로 제 3회 산·학·연 심포지움의 막을 내렸다.

3일간의 심포지움이 진행되는 동안 불편한 점을 이해해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참가 회원 및 가족들께 감사드리고 끝으로 참가회원을 위한 선물을 제공해 주신 태평양화학에 감사드립니다.

(기획간사 김정호)

□ 참가자 명단

LG전선	김양국	KIST고분자부	김영하	한양대학교	조창기
LG전선	배헌재	KIST고분자부	김정안	회 장	김정엽
대림산업(주)	정종기	KIST고분자부	임순호	전무이사	강두환
동양나이론중앙연구소	유영출	KIST고분자부	이준영	조직간사	이대수
동양나이론중앙연구소	이호동	KIST의과학연구센터	최귀원	조직간사	하창식
생산기술연구원	박익민	KIST의과학연구센터	최재봉	기획간사	김동영
생산기술연구원	허완수	인하대학교	이광희	기획간사	김정호
영진화학	서장혁	제일모직화성연구소	이상선	편집간사	이영무
(주)에스케이씨	전영관	한솔제지	장영종	편집간사	조재영
(주)유공대덕기술원	윤호일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류재균		합계 : 31명
(주)유 공	이종래	한양대학교	임승순		



산 · 학 · 연 심포지움



소 식

고려대의 진정일 교수 IUPAC Macromolecular Division의 Division Committee Member로 피선

영국 런던의 서남쪽 작은 도시인 Guildford에 있는 University of Surrey에서 8월 4일부터 11일간 벌어진 38차 IUPAC General Assembly의 Macromolecular Division (Division IV)에서 공식적인 Division Committee Member를 새로 선출하였는데, 고려대의 진정일 교수는 일본의 A. Abe 및 호주의 R. G. Gilbert와 함께 피선되어 세계적으로 7명중의 한사람이 되었다. 따라서 Macromolecular Division에서 하는 여러 가지의 일을 결정하는 데 한국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가 있게 되었으며, IUPAC 회장 및 부회장 피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아울러 Macromolecular Division에 참석하여 IUPAC MACRO SEOUL '96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한 여러 가지 조언을 들었다. 그리고 대한화학회 전민제 전회장, 채영복 현회장 및 심상철 차기회장 등이 참가하여 CHEMRAWN에 관한 진행상황을 아울러 보고하였다.